

# 새로운 미래 향해 검은 토끼처럼 큰 도약 준비

**강** 임준 군산시장이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는 그간 추진되었던 재생에너지, 전기차 생태계 조성 중심 산업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면서도, 새만금 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첨단소재 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의 집적을 강화해나가는 계획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이후 가로망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도 지난 12월말 개통되는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항·신항만 등 굵직한 SOC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며 국제항공물류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을 맞아 검은 토끼처럼 큰 도약을 준비해 가는 군산시의 신년계획을 살펴본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산업 중심 산업구조 2단계 개편 신속 돌입**

지난 2017년 가동 중단되며 지역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 3개월만인 지난 10월 재가동에 돌입하며 지역 산업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켰다.

특히, 지난 5월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며 친환경·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조선업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도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준공 이후 매월 23억원의 발전 매출이 창출되고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에 선정돼 최대 1.6GW 발전을 목표로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비 확보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래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9월에는 지역의 전기·전장 및 부품기업의 미래형 상용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 센터가 착공했고, 산업용 자율주행 스키이트 플랫폼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군산 상생형일자리 참여기업의 독자 모델 전기차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고도화에 힘써나가면서도 첨단조선, 이차전지, 첨단소재 및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신산업 확충으로 특화된 자립경제 실현에 매진해 새로운 기회의 도시로 도약해 나간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맹진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확대를 통한 자립경제 체제 구축 매진**



2018년부터 5년 연속 전액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은 국비 보조액은 줄어들었으나 2023년에도 10% 할인이 유지, 발행될 예정으로 시민주도 지역순환경제 확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고물가 시대 시민 생바구니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누적 매출액 230억원을 돌파한 배달의 명수는 시스템 개선 및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종합 쇼핑플로로 발돋움해 나간다.

**▲교육 혁신·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멸문제 적극 대응**

지역 교육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부의 명수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고, 진로·진학

**산업구조 2단계 개편  
공부의 명수 플랫폼 구축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개선·보완  
시민 안전 등에 더 집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도권과의 학습격차 해소에 힘쓰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내 교육협업센터를 설치해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사업을 펼쳐 갈 방침이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학습역량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능력인 창의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청소년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 세대가 행복 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 인구 증가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정책은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604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 핵심기업 및 연구센터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공유 포럼**

전망대 조성, 동백대교·해망길 조영설치 등의 사업으로 야간 관광 콘텐츠도 보강해나갈 예정이다.

군산시가 각양각색 다양한 매력에 있는 명품 해양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올해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선유도 스카이워크 준공 등 해양체험 관광 콘텐츠가 보강되면 지역 체류 관광객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높은 쌀 의존도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전라작물 재배 활성화 및 스마트·친환경 영농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고품질 6대 원예 전라작물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재배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강소자립농 육성에 힘써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 유통 및 판매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수산물 어획 및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며 지역 신어종 활용 특산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누구나 소외 받지 않는 폭넓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누구나 소외 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폭넓은 복지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생활돌봄 복지서비스 우리동네 흥안장을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소한 생활 불편을 지역 공동체 재능 기부자를 통해 해소해 나가며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위



**군산 전북대병원의 성공 세미나**

가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통합해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350만원 넷째아 550만원 다섯째이상 1500만원 등 지급 규모를 확대해 저출산 시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도시 확립**

새해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수호에 더욱 집중하고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총사업비 100%의 결과가 반영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편 올해 안에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코로나19 및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중 도시비밀감시 조성사업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사업에 즉시 돌입하고, 월명공원 진입로면 사유지를 매입해 '단풍숲'을 신규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관개선에 도모하는 한편 올해에 고령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재활용 문화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신뢰하고 화합하는 행정, 자금심과 금지를 주는 행정으로 시민성원 보답할 것**

시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 청렴 시책인 맑은 군산추진단을 구성했고 내부 청렴도의 객관적 진단을 위해 실시한 6급 팀장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재적용하는 환류 과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시민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갈등관리심 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시민 간 갈등 발생 시 시가 주관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2023년은 기존의 문화·친선 교류를 넘어 풍력 발전 관련 미국 푸에블로시 대표단 군산 방문, 이차전지 관련 자매도시인 캐나다 윈저시와 군산 교류 등 미래산업·경제 분야까지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실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최고의 가스안전책으로 만들겠습니다

## 누구나 행복한 새해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가스안전으로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金北도시가스株式会社**  
전북 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2 / 전화 063) 240-7700

### ▶ 강임준 시장의 포부



### 금석위개 정신으로 을 한해 분골쇄신할 것

《金石爲開》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먼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봉을 감내해주시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라며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또한 시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언급했다.

끝으로 강 시장은 "군산시는 작년 온 시민이 땀땀 뚫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점화했다"며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지역 산업이 부흥하는 등 경제 활성화의 미증상이 되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올 한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